

전교생 ‘스승의 날’ 폐창에 교사들 ‘울컥’

광주예고·인성고 학생들, 감동의 기념행사 연출
라틴댄스 공연·손팻말 사진 촬영에 흐뭇한 미소

“자신보다 학생을 아껴주시는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1시 광주 매곡동에 위치한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실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학예관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학생들의 공연을 보기 위함이다. 사회를 맡은 김진철 학생회장과 위동해 부회장의 소개로 시작된 공연은 교사들의 휴대전화에 꺼내 들게 만들었다. 첫 순서는 국악과 2학년 전체가 무대에 올라 연주한 ‘성주풀이’로, 행사장에 모인 이들의 이목을 순간 집중시켰다. 이어진

‘들춤’은 전통 리듬의 경쾌한 에너지를 전하며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무용과 학생들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자이브와 차차차로 구성된 라틴댄스를 선보인 무용과 1학년 이유빈, 2학년 이채영, 3학년 김하린 학생은 각각 다른 개성과 호흡을 보여주며 무대에 생동감을 더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교사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마지막 무대는 전교생이 국악과의 반주에 맞춰 함께 부른 ‘스승의 은혜’. 단순한 합창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하나 된 감동의 시간이었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몇몇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히



15일 광주 예술고등학교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기도 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캐리커처 배지를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고영선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장은 “최근 들어 스승의 날 행사를 부담스러워해 생각하는 학교들도 많다”며 “하지만 매년 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스승의 날을 뜻깊게 만들어주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받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위동해 학생부회장은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자신보다 학생을 먼저 생

각해 주는 선생님들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인성고등학교의 중앙현관에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교사들을 맞이했다. 이어 학생들은 분홍 카네이션을 건네며 포토존으로 안내했고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따뜻한 환대에 미소 짓고, 손을 들어 고마움을 전했고 일부는 축스러운 듯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후 아침방송 시간에는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꽃을 전달하고 전교생이 함께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기차 타고 떠나는 장미 여행, 곡성역서 만나요”

코레일 전남본부, 곡성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운영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16~25일·곡성섬진강기차마을 일원)’ 기간을 맞아 곡성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곡성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철도로 곡성의 관광지를 직접 선택하고, 자유롭게 찾아가는 자유여행 상품이다. 전남본부는 축제기간 곡성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무궁화호 운영 횟수를 확대한다. 또 곡성역 구내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이용객 혼잡도 해소를 위해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임시 화장실, 휴게공간, 간이의자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곡성역 인근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진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기차를 이용해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의 희귀하고 아름다운 명품 장미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곡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7월 15일까지 보강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7월15일까지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의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내부 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 공사가 이뤄지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2층을 제외한 모든 곳에 주차

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6월23일부터 7월15일까지는 1~3층에만 주차할 수 있다. 공사는 공사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과 인근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코레일톡 앱 팝업창에서 역 주변 주차장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우리 모두 함께 헌혈 80년 그날처럼!’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열린 전남대학교 5·18 제45주년 기념 릴레이 헌혈 나눔 ‘우리 모두 함께 헌혈 80년 그날처럼!’에 참여한 이근배 총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헌혈 참여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항소심 승소

법원 “유족 정신적 피해 인정…2억5000만원 배상 명령”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되며 정부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

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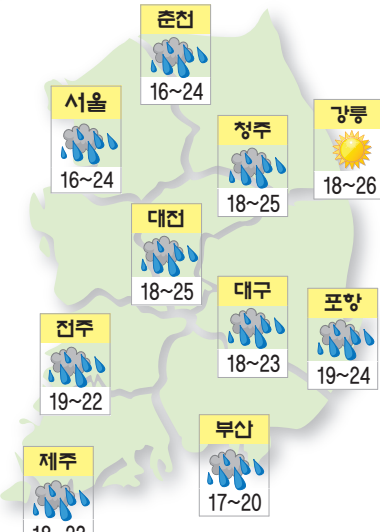
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위법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유족 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적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5:28 달출 23:05
☁️ 예보 19:30 달진 07:32



광주	☁️	19~23
목포	☁️	18~22
여수	☁️	17~19
순천	☁️	17~20
구례	☁️	18~22
광주	☁️	17~21
임도	☁️	17~22
흑산도	☁️	15~19
고흥	☁️	16~21
진도	☁️	17~21

목포	밀물(고)	04:21 / 16:10
	썰물(저)	09:32 / 21:22
여수	밀물(고)	10:51 / 23:29
	썰물(저)	05:02 / 16:45

레저용 모형 총…경찰 출동

만년필

○·광주 한 아파트에서 ‘자격총으로 보이는 장총을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15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5분 광주 남구 대촌동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신고 받은 경찰은 강력팀 등 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17분 총을 들고 있던 남성을 체포.

하지만 이 남성은 120cm가량의 서바이벌용 레저 총기를 베란다에서 손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레저용 총기는 별도 자격증 없이도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

경찰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우려돼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

동구청~조선대사거리 도로 확장…주차난 우려

청사 주차면수 154개→90여개 줄어…정문 위치 변경도
5층 주차타워 건설 예산 난항…구 “대중교통 이용 독려”

광주 동구청~조선대사거리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동구청 내 주차면이 크게 줄어 주차 대란이 우려된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과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1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문을 통해 서석동 KT광주타워 앞 공영(노상)주차장 일부 주차면(7면) 폐지를 공고,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

는다고 안내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광주시가 실시하는 동구청~조선대사거리 구간 도로 왕복 5차선 확장공사(142억원 투입·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문은 응급·특수 차량 진출입 전용으로 전환되고, 일반 차량 진출입로는 현 변호관 교부사로 변경돼 주차관제 시스템(차량 차단기)이 설치된다.

문제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 차량 주차면수가 크게 줄어 주차 대란이 우려되는 점이다. 광주종합건설본부는 동구청~조선대사거리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5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동구청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가 될 서석동 31-10 일원 80여m 구간 도로를 확장(왕복 2차선→왕복 4차선)한다. 이렇게 되면 KT광주타워에서 동구청 방면은 직진·좌회전 1차선, 직진·우회전 1차선이 된다. 동구청에서 KT광주타워 주차관제 시스템(차량 차단기)이 설치된 입구 전용) 1차선으로 변경된다.

청사 주차면수도 기존 154개에서 90여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응급·특수 차량을 제외한 관용차량 주차면은 주차타워 부지로 옮길 계획이다. 동구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동구청 별관(보건소·의회) 뒤편에 21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정지된 상태다. 현재 동구청 하루 평균 방문 차량은 275대 수준이다. 한 민원인은 “주차 공간이 줄어들면서 주차난 심화,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금요일 차 없는 출퇴근제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광주시, 경찰과 협의해 도로 확장 공사 상황에 맞춰 차량 진출입 공사, 화단·시설물 이설, 주차타워 건립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당초 동구청에서 조선대 방향(서남로 2~34) 구간 인도 확장 공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4차선에서 3차선 축소 운영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동구청 의견을 접수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개선을 목표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